

### 파파야·오크라·차요태·여주 아열대 과일·채소 해남농가 틈새작목으로 각광

파파야·오크라·차요태·여주 등 기능성 열대과일과 채소가 해남지역 농가의 틈새작목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31일 해남군에 따르면 열대과일과 채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지만 워낙 인기가 높아 유통업체 및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전량 판매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처음 생산 할때는 한국 거주 동남아 외국인을 중심으로 소비했으나 최근에는 내국인들도 즐겨 찾고 있어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어 판로 걱정이 없는 상태다.

2500㎡에 아열대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김성국(46·북평면 평안리)씨는 “7월 3주간 900여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며 “오는 10월까지 4800여만원의 소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와 국민식생활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아열대 채소를 재배해 왔다”며 “연차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재배기술과 요립법 등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해남군 북평면 한 농가가 아열대 채소인 '오크라'를 수확하고 있다. 최근 기능성 열대과일과 채소 소비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박희석기자 dia@

### K-water, 흑산도에 '해수 담수화시설' 지원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석천)는 신안 흑산도에 바다물을 음용수로 바꾸는 '해수(海水) 담수화시설' 기술지원에 나선다.

K-water와 환경부는 총사업비 23억여원을 투입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주변 및 소규모 수도시설 10곳을 비롯해 군부대 4개소, 지방상수도 4곳 등 총 18곳을 대상으로 지방

상수도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본부는 8월부터 흑산도 군부대 시설에 해수를 이용한 수돗물을 만드는 해수 담수화시설 기술지원을 맡게 됐다.

이석천 전남지역본부장은 “앞으로 산하 관리단 등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장 정밀진단을 한 뒤 흑산도에 1일 60t 규모의 담수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 신안군 공영버스 주민의 발똥다

### 민간버스 인수 직접운영 이용객 편의 제공 큰 호응

### 짚은 운행 중단 '위기의 농어촌 버스' 구할 모델로

충남과 전북 등 소규모 영세업체가 운영하는 농·어촌 버스가 이용객 감소 등으로 운행 중단 위기를 맞는 가운데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시행한 '농·어촌버스 공영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2007년 5월 입자면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 신의면을 끝으로 13개 섬에서 운행하던 13개 업체 버스 25대를 8억4100만원의 보상금을 주고 인수해 직접 운영하고 있다.

군은 연도교로 이뤄진 섬을 5개 권역으로 묶어 주민들로 구성된 '공영버스 협의회'를 만들어 이곳에 재정 지원금을 주고 있다. 지난해 지원금은 16억 800만원.

협의회는 지원금을 받아 운전기사 급여와 차량 유지 관리비로 쓰고 있다. 복지 등 신규노선 운행 결정 때도 협의회가 결정한다.

군은 조례를 만들어 65세 이상 군민 이용시 요금을 받지 않는다. 일반인과 학생은 1000원과 500원으로 육지보다 훨씬 싸다.

주민 광재구(71·신의면 하해도)씨는 “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가 제시간에 도착해 나들이가 쉽고, 도로 사정이 그리 좋지 못한 마을까지 다녀 정액 편리하다”고 말했다. 밤이 되면 꼼짝없이 섬에 갇히는 섬 주민을 위해 '여객선 야간 운항'이라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만든 박우람 군수는 농·어촌버스 공영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운수 업체 대부분이 영세해 일부 노선의 짚은 결함과 운행 중단,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 등으로 주민 불편이 컸기 때문이다.

박우람 군수는 “짚은 운행 중단 등으로 주민들이 여객선을 타기 위해 선착장까지 먼길을 걸어다니는 등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공영제를 도입했는데, 이제는 승객도 늘고 주민들이 아주 흡족해 한다”면서 “전국적으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영제 도입이 좋은 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 북항에서 압해도로 오가는 압해농협 소속 철부도선을 시작으로 하의, 압해~압태, 북항~안좌 등 6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 시간을 예전보다 1시간가량 늦추는 야간 배길사업을 과 호응을 받았다. /서부취재본부=조완원기자 wncho@



### 슬로시티 완도 청산도, 자연에서 휴식을~

### 휴가철 가볼만한 농촌마을 뽐혀

'슬로시티'로 지정된 완도 청산도가 '휴가철 가볼만한 농촌마을'로 뽐냈다.

충청남도 23일동안 전국의 걷기동호인 등 7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지역의 대표적인 명품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추제가 끝난 이후에도 청산도를 찾는 관광객은 끊이지 않고 있다.

7월 까지 20만명을 돌파했으며, 지난 한해 총 24만여명이 방문한 것과 비교했을 때 올 하반기까지 청산도를 방문한 관광객 수를 합하면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청산도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며, 여름철 해수욕장과 슬로푸드 체험, 전통기장이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 진도서 7개국 '씨뮤직 페스티벌'

### 3~5일 가계해수욕장...美 등 음악가 400명 출연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가족형 음악축제인 '진도 국제 씨뮤직 페스티벌(이하 페스티벌)'이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진도 가계해수욕장에서 열린다.

지난 31일 진도군에 따르면 이번 페스티벌에는 미국, 필리핀, 케냐 등 7개국에서 초청된 외국 음악가 등 400여 명이 출연한다.

중곡,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영국출신 3인조

음색으로 듣는이의 마음까지 상쾌하게 하는 '하운', 국내 인기 창작 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 등 건강한 음악 활동을 하는 아티스트들도 페스티벌의 흥을 돋운다.

이 밖에도 유명인사를 초청해 다음 세대와 관객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특강을 비롯해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게릴라 데이트, 참여 음악가와 교류할 수 있는 사인부스 등의 행사가 마련된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 전 북

### 韓中日 지방자치단체 뭉친다 부안서 29일~9월 2일까지 교류회의

한국과 중국, 일본의 지방정부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교류회의가 오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 부안에서 개막된다.

3개국 지방정부 관계자 500명이 참석한 이번 교류회의는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지역특색을 살린 동북아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다.

회의는 기초장연과 3개국 대표의 주제발표, 10여 개 지방정부의 신도시 건설·관광·환경·국제행사 유치에 관한 사례발표, 토론회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전북도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새만금 간척지와 한옥마을, 익산 미륵사

지 등 유적지와 개발지구를 소개하고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회의는 3개국 지방정부가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신뢰를 다지고자 199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2회)과 강원·전남도(각 1회) 등에서 열린 적이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3개국 3000여 개 지자체에 새만금 지역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거점이자 동북아 경제를 선도해나갈 새로운 성장 엔진임을 알리고 전북도의 다양한 전통 문화를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색다른 체험 있다

### 숙박 이용객 올들어 2만4472명 ... 음악회 등 다양한 테마 있어 인기몰이

전주 한옥마을내 전통한옥 숙박시설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체험형 관광객 유치에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전통한옥에서 한옥숙박과 전통문화를 체험한 관광객은 모두 2만44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456명에 비해 40.1%가 늘어났다.

지난 한해 전주 한옥마을 전통한옥 숙박시설을 찾은 체험숙박 관광객은 모두 4만3456명으로, 2009년 2만7081명과 비교해 60.4%가 늘어날 정도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전주한옥마을을 찾아 전통한옥 숙박체험을 한 외국인 관광객은 4629명으로 나타나 한옥숙박 체험 관광객 10명 중 1명은 외국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전통한옥 숙박을 찾고 있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방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체험숙박 관광객들로 전주 한옥마을이 북적거리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과 방학을 맞은 한옥생활 체험관과 동라원 등 대표적 한옥숙박 체험시설의 경우 이미 8월 중순까지 예약이 풀리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전주 한옥마을이 올해에는 한국관광을 대표하

### 내장산에 '차없는 소통의 길'

#### 제1~4주차장 2.1km 주말 차량통행 금지

국립공원 내장산에 차가 다니지 않는 오솔길이 생겼다. 정읍시는 내장산에 건강을 위한 쉼터와 자연·문화를 즐기는 오솔길을 마련하고 지난 30일 김생기 시장과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 없는 아름다운 내장산 소통길' 선포식을 열었다.

소통길은 내장산 제1~4주차장 2.1km로 단풍철인 10~11월을 제외하고 전 주말에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자유롭게 걷고 자전거와 인라인 스케이트, 보드 등을

타며 내장산의 풍광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또한 내장산 조각공원과 내장저수지 아래에 있는 내장산 물놀이공원에서는 토·일요일에 시립국악단의 고전무용, 창극, 판소리, 사물놀이 공연, 통기타 공연, 시민 장기자랑 등의 상설 소공연도 마련됐다.

내장산 제4주차장 인근에는 편백나무를 활용한 건강 치유숲(1만5천㎡)도 들어선다.

김생기 시장은 “내장산에서 건강도 챙기고 우리 문화도 즐기면서 자연의 청정한 숲속에서 편안하게 휴식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뉴스 브리핑

#### 새만금 관광지 개발·투자유치자문위 위촉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명노)은 지난 26일 새만금내 신청사 2층 회의실에서 관광지 개발 및 투자유치정책 자문을 담당할 '새만금 관광지개발·투자유치 자문위원회'를 위촉식을 가졌다.

새만금 관광단지 및 고군산군도 지구의 개발과 투자유치 자문 역할을 할 자문위원단은 관광과 부동산, 법률 분야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명노 청장은 “앞으로 1년에 1번씩 관광지개발·투자유치 자문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대야역~ 군산산단 잇는 인입 철도 연내 착공

전북도는 군산 대야역에서 군산 2 산업단지를 잇는 인입 철도를 연내에 착공할 계획이다.

도는 국토해양부의 물동량 재조사 결과 당초 기본계획보다 11.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다음달 국토부와 총 사업비를 협의한 뒤 9월 발주, 11월에는 인입 철도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군산2산단 2 산단지역을 위한 군산 대야역~산단 내 현대중공업 앞까지 26.7km의 인입 철도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경제성 논란이 빚어지는데다 주민이 폐선로인 '옥구선'을 이용하려 반대해 난항을 겪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 정읍시, 행정 기록물 DB화로 체계적 관리

정읍시는 보고서 등 보존 가치가 있는 행정자료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행정자료실을 정비하고 각종 행정자료의 DB(Data Base)화 및 체계적 관리에 나섰다.

시는 최근 시청 본관 2층에 있는 60㎡ 규모의 행정자료실을 새롭게 정비했다.

총 5000여권의 도서 및 행정자료를 비치할 수 있는 행정자료실에는 현재 300여권의 용역자료 및 시가 발행한 간행물 및 행정수행자료 등 모두 500여권과 다수의 시정기록 CD가 비치돼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남원시, 범씨 무논점파 시범단지 30ha 조성

남원시는 최근 송동면 두산리 24농가 30ha에 농가재 지원과 핵심기술을 투입해 '무논점파' 시범단지를 조성했다. 무논점파는 못자리에서 버릴 키운 뒤 논에 옮겨 심는 '이앙재배'와는 달리 썩은 퇴비를

바로 논에 뿌리는 방식이다. 무논점파 재배기술은 출수 불균일 등 기존 직파재배의 문제점을 보완, 초기생육이 우수하고 잡초생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bs8787@